

[ TV ]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 봄 개편, 아나운서 대거 기용 '눈길'

백승주·박지윤·고민정 등 15명 MC로 신설 프로그램 진행



백승주, 고민정, 김진희

KBS가 30일 단행하는 봄 개편의 최일선에 아나운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아나운서들이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펼쳐왔지만, 이번 개편에는 그 폭이 더욱 확대됐다.

24일 열린 봄 개편 설명회에 백승주, 박지윤, 고민정, 김진희 아나운서 등 무려 15명의 아나운서가 MC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일부 시사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ITV '유유자작'은 MC뿐 아니라 패널들까지 아나운서로 채워진다. 이재후 아나운서가 MC를 맡고 박지윤, 김보민, 김현태, 이선영, 조우종 등 아나운서들이 출연해 집단토크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여성공감'은 정음실,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이영걸·신윤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역사프로그램 '역사야 놀자'에서는 이광용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나선다. '한국사 전'에는 한상권·이상호, '대한민국 %'에는 황수경 아나운서가 MC로 투입된다.

2TV 신설 유아용 프로그램인 '엄마의 무릎학교'에서는 전현무 아나운서가 아바 역할을 맡았으며, 게임쇼인 '척 보면 안나'에서는 백승주 아나운서가 이경규와 호흡을 맞춘다. 그 외 '특별 공개수배'(이창진·고민정), '와!우! 화제와 현장'(이영호·이지예), 'TV탐험 멋진 친구들'(전현무) 등도 아나운서가 MC로 나서는 프로그램들이다.

물론 '상상플러스'의 최송은 아나운서 등 기존 인기프로그램에서도 아나운서들이 진행자 계보로 이어간다.

이와 같은 아나운서의 등용에 대해 남상우 편성본부장은 "특별히 아나운서를 많이 투입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며 각 제작진이 내린 결정"이라며 "그만큼 뛰어난 아나운서들이 많아졌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Program Name, Time, and other details.

어린이 4명 중 3명 "연예인 해보고 싶어"

투니버스 설문조사... 가수 탤런트 순

어린이 4명 중 3명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 435명의 어린이가 '음악·연기를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343명)에 이르는 1천374명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with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25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SBS, MBC, KMTV,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KBC' (Korea Broadcasting Company) with program highlights.

Advertisement for 'TBN' (The Bible Network) with program highlights.

Advertisement for 'BBS' (Blessing Broadcasting System) with program highlights.